



제 2019-115호

중국

중국 첫 ‘사진으로 보는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사건 발생

북경사무소

■ 현황

- ‘사진으로 보는 영화(图解电影)’란 온라인상에서 사진 등 이미지를 이용해 영화와 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해설해 주는 플랫폼인데, “10분 만에 좋은 영화 혹은 드라마 한 편을 감상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영화 및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캡처해서 이를 온라인 스틸컷 모음집으로 제작해 왔음. 하지만 동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드라마 ‘삼생삼세십리도화(三生三世十里桃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캡처하여 스틸컷 모음집으로 만들어 제공함
- 이에 ‘유쿠온라인기술회사(优酷网络技术(北京)有限公司)’가 ‘사진으로 보는 영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선전시슈슈과기회사(深圳市蜀黍科技有限公司)’를 상대로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에 경제적 손실과 합리 비용 50만 위안(한화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주요 내용

- 원고의 소송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우리는 원고의 소송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사진으로 보는 영화’ 플랫폼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정보저장공간에 불과하며, 업로드하는 콘텐츠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명(声明)으로 요구했으므로 플랫폼이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도 충분히 이행하였다.
 - 둘째, 영상에 대한 방영은 통상 1초에 24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보는 영화’는 이러한 사진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 영상저작물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사진으로 보는 영화’는 사진과 문자가 결합한 재창작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자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 셋째, 작가가 플랫폼에서 이러한 사진과 문자가 결합한 콘텐츠를 공유할 때 무려 300장 이상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방영하는데 단지 몇 초만이 소요됐을 뿐이므로 전체 영상과 비교하면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 인용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문제 된 스틸컷 모음집은 단지 해당 드라마의 제1회와 관련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총 58회에 달하는 해당 드라마의 예고편에 불과하므로 드라마에 대한 마케팅 역할을 했을 뿐이다.
- 지난 8월 6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림.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공한 ‘사진으로 보는 영화’에서 제공되는 스틸컷 모음집은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경제손실 3만 위안(한화 약 515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사진으로 보는 영화’에서 제공된 스틸컷 모음집은 문제 된 드라마의 음향효과를 삭제한 후 드라마상의 382 화면을 캡처했는데, 캡처된 화면은 공유영역의 창작적 요소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독창성을 갖춘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스틸컷 모음집을 제공한 행위는 저작물을 제공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소된 침해행위는 온라인상에서 대중이 개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문제의 스틸컷 모음집을 볼 수 있도록 한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는 문제 된 드라마의 전송권의 통제범위에 속한다. 설사 문제의 스틸컷 모음집을 온라인 이용자인 제3자가 업로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영상저작물은 큰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통의 이용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만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이트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영상자원을 이용한 스틸컷 모음집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이용자와 문제 된 스틸컷 모음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주관적 고의가 존재하며, 공동으로 문제의 스틸컷 모음집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문제 된 스틸컷 모음집의 대부분이 문제의 드라마에서 캡처된 부분이며, 비록 피고 회사가 일반 영화 유사 저작물이 매분 24개의 화면을 보여준다는 계산에 근거하여 문제 된 스틸컷 모음집은 단지 원작품의 0.5%의 장면만을 인용했다고 주장하나, 합리적 인용의 판단 기준은 인용의 비율이 아니라 소개, 평론 또는 설명의 합리적 필요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동사안에서 문제의 스틸컷 모음집은 소개, 평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자가 짧은 시간 내에 드라마의 줄거리 전개를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합리적인 인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문제 된 스틸컷 모음집은 전체 작품에서 사진을 캡처한 후 문자해석을 더 해서 극 중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대중은 해당 스틸컷 모음집을 봄으로써 짧은 시간에 극 중 주요 장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이러한 스틸컷 모음집 제공행위는 해당 드라마에 대한 실질적 대체작용을 하게 되고 문제의 드라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평가

- 중국에서 저작권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새로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인 네티즌보다 플랫폼을 경영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유는 개인과 비교하면 기업의 금전적 배상능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로 플랫폼 경영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저작권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많음

출처

- 신화망(新华网)
- http://www.xinhuanet.com/legal/2019-08/08/c_1124850007.htm